

7

한국 육상경기와 올림픽대회

1

태극기 앞세운
첫 올림픽대회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한국 체육계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4월 조선육상경기연맹 주최 제14회 올림픽대회 파견 육상경기 최종예선대회 마라톤에서 1위 서윤복 2시간 32분 1초, 2위 최윤철 2시간 34분 48초로 1,2위 선수가 해방후최고기록을 작성했다. 3위는 홍종오 2시간 39분 35초, 4위 함기용 2시간 40분 35초 등이다.

1948년에 열린 제14회 런던 올림픽대회. 당초 1940년 제12회 대회는 도쿄에서, 1944년 제13회 대회는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 터지면서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 만큼 런던 올림픽대회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이후 꺼진 성화가 12년 만에 다시 타올라 세계 인류의 제전이 부활하는 감격의 잔치였다.

또 한국이 'KOREA' 라는 이름으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출전한 첫 올림픽대회였다. 대회에 앞서 KOC는 1947년 IOC의 승인을 받아 종목별로 선발전을 치렀다. 그해 10월 13일부터 7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치러진 제28회 전국체육대회에 3000여 선수들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그 무렵 조선올림픽후원회가 결성돼 1년을 앞둔 런던 올림픽대회 참가를 위



이상백은 우리나라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참가한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 준비에 큰 공을 세웠다.

한 준비가 범국민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에선 종목별 선발대회가 열려 가히 공전의 스포츠 붐이 일어난 시기였다. 각종 대회에서는 육상경기를 필두로 자전거 경기 등에서 한국신기록이 속출하고 각 종목에 두각을 나타내는 신예도 적지 않았다.

특히 육상경기 장거리 부문에서는 최윤철이라는 기린아가 탄생했다. 여기에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의 김원권, 해머던지기의 인강환 등 일제 때 메이지신궁대회를 주름잡던 맹장들도 건재를 과시했다. 이처럼 올림픽대회에 대한 체육계 안팎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었지만 정작 올림픽대회 출전은 쉽지 않았다.

런던 대회는 1948년 7월 29일 개막해 8월 14일에 끝났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다. 남한의 건국은 올림픽대회 폐막 다음 날인 8월 15일. 그래서 선수단의 출국은 미 군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육상경기, 역도, 복싱, 레슬링, 축구, 농구 등에서 선수 52명을 뽑아 출전 신청을 했다. 파견 임원은 12명이었다.

그랬더니 군정청은 임원 재조정과 함께 주한 미군의 일개 부대팀에게도 지는 수준의 농구팀을 왜 보내느냐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선수단을 줄이라는 것이었

다. 하지만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운 법. 게다가 줄였다간 탈락 선수와 해당 협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분위기였다.

사실 당시 체육계 내부에는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 기준이 흔들리고 체육회의 지도력이 무디어지는 등 내홍을 겪고 있었다. 선수 선발과 추천에 학연, 지연을 동원한 이기적 흐름이 팽배했고 종목에 따라선 선배가 후배를, 후배가 선배를 따돌리는 추악한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마당에 20여 개가 넘는 경기단체의 무리한 요구를 줄이고 줄여 구성한 선수단을 다시 줄이라니 체육회로서 실로 난감한 노릇이었다. 이를 해결한 사람이 이상백이었다. 국제통인 그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KOC 부위원장으로 광복 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농구선수와 코치로 활약하면서 미국 원정까지 다녀온 바 있었다.

이상백은 당시 IOC 부위원장으로 이후 1952년 위원장에 오른 미국의 에이버리 브런디지와 친분이 있었다. 이상백이 도움을 요청하자 브런디지는 한때 미국 체육협회장을 지낸 연합군 총사령관 맥아더에게 부탁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한국 대표단은 낙오자 없이 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한 장도에 오를 수 있었다.⁰⁰¹

올림픽후원회의 국민성금 모금

한편 올림픽후원회가 구성돼 올림픽 참가 준비에 힘썼지만 열악한 국가 경제 사정 탓으로 올림픽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올림픽후원회는 이에 국민성금 모금용 복권인 ‘올림

⁰⁰¹ 정희준, 2009, p60.

⁰⁰² 김광희, 2001, p316.

⁰⁰³ 이학래 외, 1994, p310.

‘대한’의 이름으로 국제대회 참가

1948년 한 해는 일제로부터 되찾은 조국의 국호와 태극기를 앞세우고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역사적인 해였지만 체육회는 어수선한 일을 많이 겪었다. 특히 육상경기연맹의 정환범 회장이 공석 중인 조선체육회 회장에 보선된 1948년 2월 이후 체육회는 심각한 분규에 휘말렸다. 정환범은 영국 런던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상하이 후장(滬江)대학 교수로 있다가 광복 후 귀국해 1947년부터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직을 맡았다.

선수단 출국을 1주일 앞둔 1948년 6월 14일 중앙기독교회관에서 체육회 임시평의회가 열렸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런던 올림픽대회에 파견할 임원과 선수를 인선할 즈음 발생한 잡음이 결국 물의를 빚었다. 문제는 미 군정 당국이 일부 임원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데서 비롯되었다.

여기저기서 성토가 쏟아지는 가운데 조선체육회는 미 군정 당국이 올림픽 대표단 인선 문제에까지 개입하게 된 이유를 규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단 파견비 가운데 부족한 5만 달러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위원을 뽑아 임무를 맡겼다. 그런데 대표단 구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 등 고성인 잦아들 즈음 선수단을 인솔하고 출발할 예정이던 정환범 단장이 조선체육회 집행부 전원과 함께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⁰⁰²

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조병옥을 위원장으로 한 실행위원들은 일단 미 군정장관을 방문해 부족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고 체육회 내부의 불신 문제는 올림픽 대표단이 귀국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선수단이 돌아온 뒤 9월 3일과 4일에 열린 임시 평의원 회의에서 선수단 간부의 징계를 결의하는 동시에 출국 전에 제출한 회장 이하 집행부 간부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 조선체육회의 새 집행부를 구성해 회장에 신익희, 부회장에 김동성·옥선진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사용하던 ‘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국호에 따라 모든 단체명과 대회 이름에 ‘대한’을 쓰기로 했다. 이로써 조선체육회라는 호칭은 28년 만에 없어지고 ‘대한체육회’ 시대가 열렸다. 1948년 9월 3일의 일이었다.⁰⁰³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발행된 올림픽후원권. 사진 속의 인물은 전경무 씨다. 전경무 씨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 후 올림픽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한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정식 회원국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픽후원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1947년 12월 본격 판매에 나섰다. 이 후원권이 바로 우리나라 복권의 효시다.

후원권은 액면 100원짜리로 경품을 곁들여 당첨되면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당시 고급 담배였던 '공작'이 30원, 영화 관람료가 40원이던 시절이었다. 국민들의 성원은 대단해서 140만 장(1억 4천만 원)이나 팔려나갔다고 한다. 그 밖에도 각종 연극·영화 등의 수익금 전액을 올림픽후원회에 기증하는 일이 이어졌다. 그 수익금으로 8만여 달러를 조달해 올림픽 출전 경비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었다.⁰⁰⁴ 당시 런던 올림픽대회 참가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드러내 준 사례였다. 올림픽 선수단이 출발하기 사흘 전인 1948년 6월 18일 서울운동장에서는 선수단 결단식 겸 시민

⁰⁰⁴ 같은 책(1994), p310.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 참가를 앞두고 '조선 올림픽 대표단' 선수들이 서울운동장에서 결단식을 가진 뒤 종목별로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서윤복·홍종오·함기용·최윤철(이상 마라톤), 심복석(5000m, 1만m), 이윤석(800m, 1500m) 김원권(멀리뛰기, 세단뛰기), 김원룡(육상경기 코치), 김관우(육상경기부 감독).

환송회가 열렸다.

런던 올림픽대회 홍일점 선수 박봉식

총 67명의 선수단 가운데 올림픽대회 참가 선수는 52명이었고 육상경기에서는 선수와 임원을 포함해 13명이었다. 선수 분포는 30세 이상 노장이 31명이었다. 최고령자는 베를린 올림픽대회에 참가했던 축구의 김용식과 역시 베를린 올림픽대회 조선 대표로 뽑혔으나 참가가 좌절된 역도의 남수일로 당시 39세였다. 최연소는 이화여중에 재학 중이던 19세의 박봉식으로 한국 선수단 홍일점이었다.

선수단 환송식에는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을 비롯해 체육계, 미 군정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고 수만 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흔드는 태극기로 서울운동장이

올림픽대회 첫 참가

둘러싸이다시피 했다. 1948년 6월 20일 밤에는 덕수궁 광장에서 서울보건부인회 등이 주최한 올림픽 선수단 환송 모성대회가 개최돼 떠나는 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베풀어 주었다. 아울러 초대 국회는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보내는 격려 메시지를 채택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1일 이른 아침 선수단은 서울 종로 2가 YMCA회관에 모여 수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서울역까지 걸어서 행진을 했다. 인산인해를 이룬 서울역을 기차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선수단은 배를 타고 런던으로의 대여정에 들어갔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민간 항공노선이 없어 6월 21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부산에서 화물선으로 일본 후쿠오카, 기차 편으로 요코하마에 닿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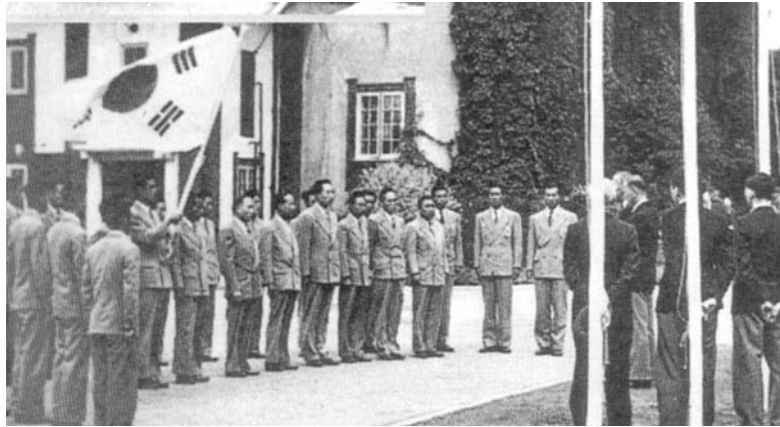
선수단은 이곳에서 여객선으로 6일간에 걸쳐 홍콩으로 가서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후쿠오카~요코하마~홍콩~방콕~켈커타~카라치~카이로~암스테르담 등을 거친 20일의 대장정 끝에 런던 현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렇듯 많은 시간이 걸렸기에 우리 마라톤 대표팀의 남승룡 코치는 런던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틈만 나면 선수들을 달리게 했다.

1948년 7월 29일 런던 올림픽대회 개막식이 열린 엠파이어 스타디움은 10만 명의 대관중이 운집해 있었다. 태극기를 앞세우고 처음으로 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우리 대표 선수단은 67명으로 59개 참가국 가운데 규모로 봐선 31번째였다. 선수단 맨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들어선 사람은 베를린 올림픽대회의 마라톤 영웅, 손기정이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취재진을 보낸 서울중앙방송(현 KBS)의 취재기자이자 아나운서인 민재호는 감격에 겨운 듯 흥분한 목소리로 이 실황을 중계했다.

“런던 하늘에 태극기, 선수들 앞에도 태극기, 이 넓은 스타디움에는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득하건만 저 태극기를 눈물을 머금고 바라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태극기도 입이 있어 말을 한다면 우쭐거리고 춤을 추면서 파란 많은 지난날을 눈물로 독백하리라…….”⁰⁰⁵

런던 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서운복 등 3명이 참가하는 마라톤에 기대를 걸었다. 8월 15일 정부 수립의 역사적인 행사를 한층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⁰⁰⁵ 당시 서울중앙방송은 영국 BBC방송과 제휴해 매일 15분씩 방송 송출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놓고 있었다. 그 시절 유일한 뉴스라인은 라디오였는데, 수신 상태가 고르지 못했음에도 올림픽대회 뉴스 시간대에는 모든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며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곤 했다. - 김광희, 2001, p330.



광복 후 처음으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참가한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 기수는 손기정 선수였다. 한국 선수단의 선수촌 입촌식 모습.

라도 올림픽대회의 메달이 필요했다. 서울의 관계자들로부터 마라톤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격려성 전문이 연신 날아들었다. 나머지 종목들은 광복 후 혼란 속에 올림픽대회 참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의욕만 갖고 참가한 터라 참가하는데 의의를 뒀다.

경기 첫날은 육상경기의 원반던지기로 시작됐다. 여자 원반던지기에 우리 대표팀 홍일점이자 최연소인 여고생 박봉식이 나섰다. 이화여중 5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봉식은 4월 26일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최종선발대회 원반던지기에서 37m 08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유망주. 그러나 그녀는 국제대회 경험 부족 탓인지 두 차례나 무효시기를 범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도, 긴장감을 떨쳐 버리려는 듯 박봉식은 큰 한숨을 몰아 쉬곤 힘껏 원반을 던졌다. 기록은 33m 8로 자신의 기록에 훨씬 못 미쳤다. 결국 하위권으로 밀리며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 대회 여자 우승자인 프랑스의 오스텔 메이어의 기록은



- ◀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 복싱에서 3위에 입상한 한수안 선수가 받은 상장. 한가운데 코리아가 명기돼 있다.
- ▶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에 파견된 한국 선수단 가운데 홍일점이었던 박봉식 선수.

41m 92. 그만큼 세계의 벽은 높았다. 다른 육상경기 종목에서도 성적은 부진했다. 남자 800m의 이윤석, 세단뛰기와 멀리뛰기의 김원권, 해머던지기의 인강환, 5000m와 1만m의 심복석 등도 세계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해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복싱에서 한수안과 역도의 김성집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대회 시상식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었다.

런던 올림픽대회 육상 종목에서 단연 주목을 끈 선수는 네덜란드의 브랭커즈 코언. 남매를 둔 주부 선수 코언은 육상경기에서 100m, 200m, 80m 허들, 4×100m 릴레이 등 네 종목을 석권해 4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특히 그녀는 지금은 없어진 80m 허들에서 11초 2로 세계신기록을 세운 뒤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여유를 보여 화제를 모았다.

기대주 철각 최윤철의 안타까운 기권

한국의 기대 종목은 역시 마라톤. 바로 1년 전인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서윤복이 우승한 데다 철각 최윤철 같은 뛰어난 선수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최윤철은 19세로 경북중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기록이 2시간 25~26분으로 비교적 안정돼 있어 우승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국 선수단은 마라톤에서 기필코 좋은 성적을 거둬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을 제패한 손기정의 영예를 되찾길 기대했다. 대망의 8월 7일. 오전 11시까지만 해도 폭우와 세찬 바람이 계속돼 경기가 진행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그러다 갑자기 날씨가 쾌청해지더니 섭씨 38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로 변했다. 오후 3시, 22개국 44명의 마라토너들 속에 서윤복, 최윤철, 홍중오도 스타트 라인에 섰다. 그리고 잠시 뒤 스타트 신호와 함께 선수들은 일제히 뛰어나갔다.

40년 만의 무더위라는 날씨는 선수들이 10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다시 흐려지고 바람이 부는 등 변덕을 부렸다. 그만큼 선수들의 레이스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경기 중간중간에 몸에 경련이 일고 기권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첫 참가한 올림픽 마라톤에서 최윤철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힘찬 레이스를 펼쳐 나갔다.

그의 질주는 마치 한국이 베를린 올림픽대회에 이어 올림픽대회 마라톤을 연거푸 제패할 기세였다. 반환점을 돌면서 차츰 스피드를 올린 최윤철은 27km 지점에서부터 벨기에 선수를 제치고 선두로 질주해 나갔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40km 지점까지 줄곧 잘 달리던 최윤철에게 허벅지 근육통이 일어난 것이다. 다리에 생긴 경련 때문에 걷기는커녕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통증이 심했다. 결국 그는 피니시라인을 눈앞에 둔 채 스타디움을 밟지 못하고 주저앉아 기권하고 말았다.⁰⁰⁶

함께 참가한 홍중오는 25위를 했고 전년도 보스턴마라톤 우승자이자 이 대회에서 기대를 모았던 서윤복은 27위를 하는 등 결과는 참담했다. 마라톤에 걸었던 온 국민의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올림픽대회 열기 전국체육대회로 이어져

런던 올림픽대회 이후 참가 선수들의 수준과 국민들의 관심이 함께 높아진 가운데 그해 10월 2일 학생육상경기연맹 주최 제2회 전국남녀중등학교대항선수권대회가 열렸다. 특히 경북의 최윤철은 1500m에서 4분 4초 6으로 중등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5000m에서 15분 7초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토하며 런던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의 아쉬움을 달랬다.

1948년 10월 20~26일 서울운동장에서 제29회 전국체육대회가 펼쳐졌다. 경기 내용과 기록 면에서 모두 수준급이라는 평가였다. 석 달 전 열린 런던 올림픽대회 참가 경험이 전국체육대회의 경기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육상경기에서 엄팔용은 100m, 200m, 400m 3개 종목을 휩쓸었다. 이윤석은 800m와 1500m, 송길윤은 5000m와 1만m에서 각각 우승했다. 마라톤에서는 이원복이 우승했고 안영한은 포환던지기과 원반던지기를 제패했다.

올림픽대회에서 예선 탈락에 그친 박봉식은 원반던지기에서 우승해 한국 내 최강자임을 확고히 했다. 그는 이듬해에도 우승하면서 4년 연속(1946~1949) 여자 원반던지기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는 저력을 보였다.

⁰⁰⁶ 김세호 논문, 2006, p34~35.

대구 출신의 단거리 스타 엄팔용



1951년 육상경기 국가대표 시절 엄팔용. 앞줄 맨 오른쪽.

1947년 10월 제2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걸출한 단거리 육상경기 선수가 등장했다. 바로 대구 대륜중학의 엄팔용이었다. 당시 조선올림픽대회로 불린 이 대회에서 그는 400m를 52초 03으로 달려 우승했다. 엄팔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00m를 11초 07에 달린 그는 이듬해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놀라운 기록을 수립했다. 100m, 200m, 400m 모두 우승을 차지한 것. 그해 엄팔용의 100m 기록은 11초 5였다. 1949년 6월에는 400m를 48초 5로 달려 국내 처음으로 50초 벽을 허물며 아시아신기록을 수립했다. 일본의 이마이 나카지마가 세운 49초를 12년 만에 깨뜨린 것이다. 그런 엄팔용에게도 세계의 문턱은 높았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대회 200m 예선에서 그는 4위에 그쳤다.

건장한 신체, 호남형의 단거리 스타 엄팔용은 원래 축구부 골키퍼 출신이자 농구, 배구선수로도 활약했다. 그러나 만능 선수인 그도 추격해 오는 후배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 엄팔용은 단거리 대신 허들로 종목을 옮겨 1956년 37회 전국체육대회 110m 허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듬해에는 110m 허들은 물론 400m 허들에서도 우승했다.⁰⁰⁷

훗날 박정희를 시해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전 국회의장 이만섭, 단거리 스타

엄팔용 세 사람은 모두 사제지간이었다. 이만섭이 대륜중학교 4학년이던 1947년 8월, 군대에서 면관을 당하고 김천중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고 있던 김재규가 대륜중학 체육교사로 왔다.

김재규는 소위 시절인 1947년 6월 군경체육대회에서 자기 부하를 강제 연행 하려는 미군 헌병을 칼로 위협한 사건으로 건국 이후 최초로 '명예 면관'을 당한 터였다. 그때 김재규가 아꼈던 제자가 흰칠한 키에 농구선수이며, 응원단장으로 활약하던 이만섭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육상경기 선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400m 레이스에서 아시아신기록을 세운 엄팔용도 그가 아끼는 제자였다. 면관 당한 지 1년 4개월 만에 군에 복직한 김재규는 이후에도 자신이 대륜중학 교사였고 이만섭, 엄팔용 등이 자기 제자라며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한다.⁰⁰⁸

광복 후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터라 외국으로의 나들이는 사치의 하나로 치부되었다. 특히 올림픽대회 참가는 체육인의 특권이자 특전이였다. 이후 각종 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갖가지 스포츠 이벤트가 체육인들에게는 해외 나들이 기회로 여겨졌다. 좁은 문이었던 만큼 분야별, 종목별로 경쟁이 치열했고 그 와중에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불거졌다.

대표적인 예가 1949년 4월 제53회 보스턴마라톤대회 선수단 파견을 둘러싼 대한육상경기연맹의 분규였다. 1949년 3월 대한육상경기연맹 주최 제53회 미국 보스턴마라톤대회 파견선수 선발 예선대회가 열렸다. 서울운동장을 출발해 오류동을 왕복하는 코스. 최윤철은 2시간 30분 33초로 종전 자신이 세운 기록 2시간 32분 36초를 2분여 앞당기며 광복 후 한국신기록을 작성하였다. 2위 홍중오는 2시

⁰⁰⁷ 향토와 문화, 대구은행 사외보, 2006년 8월 22일, p28.

⁰⁰⁸ 한국일보, 2009년 10월 26일자.

간 32분 47초였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예선대회에서 뽑힌 최윤철, 홍종오 등 두 선수와 1947년 제51회 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서윤복을 보스턴에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이들을 인솔할 감독 문제로 분규가 일어났다. 오랫동안 감독과 선수 간의 갈등이 계속되다 결국 감독 없이 세 선수만을 파견토록 결정이 났다. 그리고 대회 날짜가 임박한 4월 11일 선수단이 김포공항을 출발하려는데, 감독 문제로 갈등을 빚은 손기정, 김혁진, 김덕보, 이덕원 등이 전송 나간 자리에서 난투를 벌여 선수단의 보스턴마라톤대회 파견이 중지되고 말았다.⁰⁰⁹ 다음은 최윤철의 회고다.

“1949년 3월 보스턴마라톤 파견 예선대회에서 전반은 강한 압박으로 1시간 17분에, 후반은 1시간 13분에 주파해 2시간 30분으로 우승했다. 2차의 홍종오 선수와 예선 없이 선발된 서윤복 선배와 함께 스타트를 앞두고 연습을 하는데 코치 문제로 김혁진, 손기정 두 선배가 팽팽히 싸우더니 출발 당일에는 비행장에서 치고받으며 혈투까지 벌여졌는데 그 자리에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서윤복 선수와 홍종오 선수는 한국에 남고, 나와 김혁진 선배만 보스턴마라톤에 참가하도록 결정돼 도쿄의 하네다 비행장에 도착했다. 항공사 직원이 나오더니 ‘두 사람 다 나라에서 돌아오라는 전화가 있었으니 일주일 후에 다음 서울가는 비행기 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앞이 캄캄하고 속에서는 피가 끓었다. 그곳에서 일주일간 트랙 연습을 하다가 귀국해 3

⁰⁰⁹ 김세호 논문, 2006, p33

⁰¹⁰ 김광희, 2001, p344~345 재인용.

일 만에 학교 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1500m를 3분 57초 6으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그때 나는 컨디션이 절정이었는데, 그 컨디션 상태로 세계 무대에 나가 한번 겨뤄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되자 정말 땅이 꺼지길래도 한 듯이 안타까웠다. 그 후로 육상경기연맹은 싸우는 단체가 돼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다.”⁰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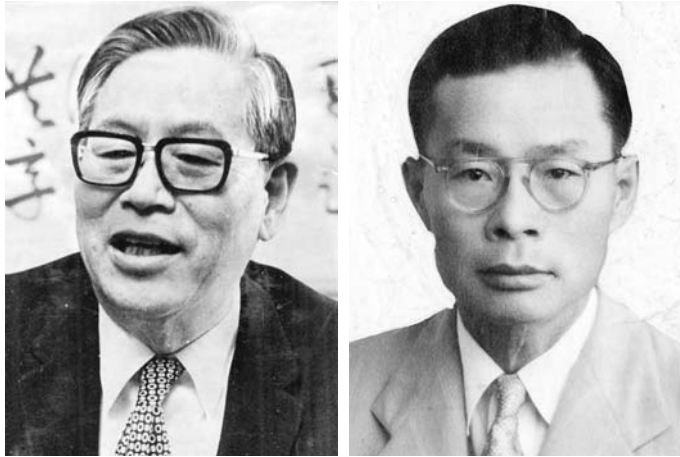
이 일로 외무부는 도쿄에 가 있는 김혁진과 최윤철에게 즉각 귀환하도록 전문을 띄웠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대한체육회는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이사진을 모두 퇴진시키고 손기정과 김혁진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1949년 육상경기 종목별 최고기록을 보면 놀랍게도 최윤철이 1500m, 5000m, 1만m, 마라톤 등 무려 4종목에서 1위를 했다. 4월 대한학생육상경기연맹 주최 제4회 전국남녀중등학교학년별대항육상경기대회는 30개교 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는데, 이 대회 남자 5000m에서 최윤철은 15분 6초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고,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박봉식이 38m 48로 역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1949년 6월 대한육상경기연맹 주최 제4회 전국남녀육상경기대회 겸 1951년 아시아경기대회 제1차 예선대회 남자 400m에서 엄팔용은 48초 5로 아시아신기록이자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그 밖에 남자 4×400m 릴레이에서 경북팀이 3분 34초 2, 1500m에서 최윤철이 4분 1초 4로 1위를 수립했다. 최윤철은 1949년 7월 일반학생대항육상경기대회 1500m에서는 3분 57초 1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949년 10월 15일부터 9일간 서울에서 제30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렸다. 21개 종목에서 4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체육 한국’의 면모를 새롭게 한 대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 대회 육상경기에서 최윤철은 1만m와 5000m를 석권했다. 특히 1만m에서 31분 27초 3의 기록은 해방후최고기록을

한국전쟁의 포연 속에서도 달리다



◀ 제3대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지낸 정일형.
▶ 제4대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지낸 최순주.

수립했다. 사실 이 기록은 일제강점기 유장춘이 작성한 기록 31분 20초 2에 못 미치는 것이지만 이 시기 한국 남자 장거리에서 최윤철이 최고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자 4×400m 릴레이에서 경북팀은 3분 33초 5(종전기록 3분 34초 2)로 또다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 시기에 ‘조선신기록’ 대신 ‘대한신기록’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고, 광복 이후 한국인에 의해 새롭게 작성된 기록에는 일제강점기 기록과 구분하기 위해 ‘해방후신기록’이나 ‘해방후최고기록’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1949년 2월 정일형이 대한육상경기연맹 제3대 회장에 선임되었고, 육상경기 단거리 레이스에 스타팅블록이 도입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포연이 한반도를 휩쓸기 전까지 체육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2월 대한육상경기연맹이 발표한 사업 계획을 보면 2월 물달리기대회(크로스컨트리), 3월 제54회 보스턴마라톤대회 예선, 4월 특수종목육상경기대회, 6월 제5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2차 예선, 7월 제3회 일반학생대항육상경기대회, 8월 제3회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제패 기념 마라톤대회 등이다.

1950년 3월 19일 서울시육상경기연맹과 서울신문사 공동주최 서울~인천 간 역전경주대회에서는 양정중학이 4시간 35분 37초로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했다. 4월 25일 소년체육회 주최로 열린 제5회 소년소녀체육대회 여자 100m에서 이화의 이병순이 13초로, 1949년 전국체육대회에서 김연실이 작성한 한국신기록 13초 2를 경신했다.

5월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서울 예선 여자 4×100 릴레이에서 1, 2, 3위까지 모두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강춘숙·황정희·최성례·김지숙이 뽀성신여중팀이 54초 2로 1위, 이화여중팀이 54초 3으로 2위, 덕성여중팀이 54초 4로 3위였다. 종전기록은 1949년 도대항대회에서 경기팀이 작성한 54초 6

이다.

6월 2~3일에는 학생육상경기연맹 주최 제1회 서울시남녀중등학교대항육상경기대회 겸 제2회 전국학도체육대회 서울시 예선에서도 한국신기록이 속속 작성되었다. 여중부 4×50m 릴레이에서 성신여중팀이 26초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고, 여자 200m에서 김연실이 27초 1, 강춘숙이 27초 8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6월 10, 11일 양일간 열린 제5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4×400m 릴레이에서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엄팔용·김두은·이이재·성락이 뛰 경북팀이 3분 29초 8로 1년 전 동 대회에서 자신들이 세운 3분 34초 2를 경신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1950년 한국 체육계 최고의 소식은 보스턴마라톤 제패였다. 1950년 4월 19일 제54회 보스턴마라톤대회가 열렸다. 한 해 전 보스턴마라톤 파견 문제로 한바탕 흥역을 치른 장본인인 손기정, 최윤철이 감독과 선수로 한 배를 탔다. 한국 마라톤의 새로운 별 송길윤과 19세의 신예 함기용도 선수단에 합류했다.

함기용의 경우 이 대회가 겨우 네 번째로 정식 마라톤 경기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우승의 기대는 전성기를 맞은 최윤철에게 모아졌다. 대회 참가 선수는 14개국 131명. 스타트라인에는 함기용, 최윤철, 송길윤 등 세 선수가 섰다. 선수들은 좁고 굵은 날씨에 시달려야 했다.

“무턱대고 달렸어. 그러다 보니 18km 지점쯤에서 앞서 달리던 미국, 캐나다 선수 그리고 최윤철 선배를 따라잡았지. 최 선배는 얼굴에 소금 꽃이 하얗게 피고 피로의 기색이 뚜렷했어. ‘최 선배 괜찮소? 기운 내십시오. 먼저 갑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나는 앞질러 나갔지. 그런데 경기 운영이 미숙했던 탓에 초반에 너무 스피드를 내 오버페이스를 한 것 같았어.”⁰¹¹

함기용은 초반에 바람을 안고 달리느라 20km까지는 50위 밖으로 처져 있었다. 그러나 25km까지 5km를 달리는 동안 순식간에 선두로 나섰다. 그는 무시무시한 스피드로 내쳐 달려 그 유명한 32km 지점 ‘상심의 언덕’에 다다랐다.

그런데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함기용은 문득 더는 달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뒤에서 쫓아온 선수가 자신을 추월했다면 경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당시를 회고했다. 하지만 뒤돌아봐도 쫓아오는 선수가 없었다.

25km 이후부터 그만큼 빨리 달렸던 것이다. 그래서 함기용은 멈춰 걷다가 또 달리고 그러다가 피로하면 또 걷고 그렇게 ‘상심의 언덕’에서 세 차례나 걸었다. 경기 도중 세 번이나 걷고 우승한 것이다. 함기용이 결승 테이프를 끊고 3분 19초가 지나서야 송길윤이 피니시라인을 넘어섰다. 그가 상심의 언덕에 이르기 전까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짐작이 갈 만했다. 이런 함기용을 두고 다음 날 현지 신문이 ‘걷기 챔피언Walking Champion’이라고 썼다. 실제 보스턴마라톤 기록집에는 그를 당시 신문에 난 것처럼 ‘걷기 챔피언’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함기용이 2시간 32분 39초로 우승했고, 송길윤이 2시간 35분 58초로 2위, 그리고 막판 죽을힘을 다해 달린 최윤철이 2시간 39분 45초로 3위를 했다. 한국 선수들이 한 대회에서 1, 2, 3위를 모두 휩쓸며 전 세계에 한국 마라톤의 건재를 과시했다.

⁰¹¹ 고두현, 2008, p16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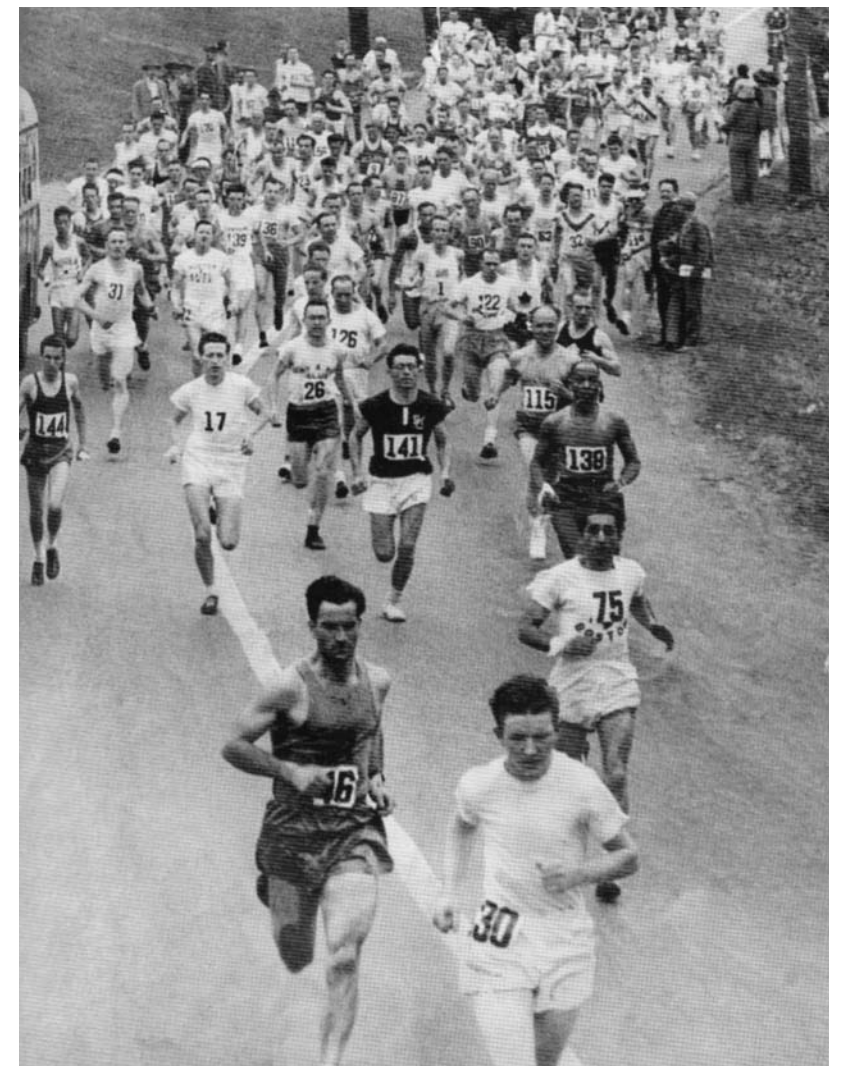
1950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1~3위를 휩쓴 한국 선수단.
오른쪽부터 감독 손기정과 1위 함기용, 2위 송길윤, 3위 최윤철.
맨 왼쪽은 당시 호놀룰루 총영사로 있었던 김용식 전 외무부장관.

보스턴마라톤대회 1~3위 휩쓴 함기용·송길윤·최윤철

한국 선수들이 보스턴마라톤의 1위부터 3위까지를 모조리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는 기쁨에 발칵 뒤집어졌다. 이들의 우승을 환영하는 뜻에서 거리 곳곳에 대형 아치가 세워졌고 대형 현수막도 내걸렸다. 서울운동장에서는 환영 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3부 요인 등이 참석하고 선수 가족들도 단상에 올랐다. 온 나라에 축제 분위기가 감돌고 여기저기서 승전 보고대회가 펼쳐졌다. 그리고 보스턴마라톤의 영웅 함기용, 송길윤, 최윤철 등 세 선수가 귀국한 지 닷새가 지났다.

1950년 6월 25일. 마침 이날은 서울운동장에서 제2회 학도호국단 체육대회



▲ 1950년 보스턴마라톤대회 당시 모습. 함기용은 이 대회에서 2시간 32분 대로 여유 있게 우승했다.

▼ 보스턴마라톤대회 1~3위를 휩쓴 뒤 경무대에 초청받은 마라톤 선수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월계관을 쓴 이가 함기용이다.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는 보스턴마라톤대회 선수단. 위에서부터 아래로 함기용, 최윤철, 손기정, 송길윤. 경향신문 1950년 4월 3일자 게재 사진.

가 열렸다. 그것도 대미를 장식하는 각종 종목의 결승경기가 벌어지고 있었다. 관중들이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던 정오 무렵이었다.

질서 유지를 담당하던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육상경기장의 확성기를 통해 긴박한 목소리로 모든 경기를 중단시키더니 관중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새벽 발발한 한국전쟁이 체육계에 전해지던 순간이었다.⁰¹²

이로 인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각종 대회와 체육 행사를 활발히 펼치던 체육계는 일시에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황망히 피난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한국 체육의 재건을 위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피난지 부산으로 내려온 체육인들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부산 문화극장 옆에 연락소를

⁰¹² 서울체육 반세기, 2002, p115.

너무 짧았던 함기용의 선수 생활



보스턴마라톤대회 피니시라인을 통과한 직후 함기용의 모습. 경향신문 1950년 5월 2일자 게재 사진.

마라토너 함기용의 선수 생활은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으로 끝나고 만다. 한창 나이에 너무나 짧은 선수 생활이었다. 1951년 고려대에 입학한 함기용은 다음해 열릴 헬싱키 올림픽대회에 대비해 대구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헬싱키 올림픽대회 파견 선발전을 보름 앞두고 다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병원에서 허리에 주사를 놓는다는 것이 그만 척추를 지나는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오고 말았다. 꾸준한 노력으로 걷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됐지만 그의 마라톤 선수 경력은 끝나고 말았다.

함기용은 1930년 11월 14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좋아해 음악가가 되려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마라톤에 입문했다. 춘천사범에 진학한 그는 체력 검정에서 중거리 달리기 성적이 좋았다는 이유로 육상경기부에 뽑혔다. 마침 손기정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의 기록영화 ‘민족의 제전’을 순회 상영하기 위해 춘천에 들렀다. 그는 함기용이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달리는 품이 좋다.”고 칭찬했다. 올림픽대회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던 손기정의 칭찬은 함기용의 앞날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결국 그는 1947년 서울로 올라와 테스트를 받고 양정고 2학년에 전학했다. 이듬해 런던 올림픽대회에 열일곱 살의 함기용은 마라톤 선수로 참가했다. 서윤복, 최윤철, 홍종오 등 3명의 정식 대표에 이어 후보 선수였다. 다음은 솔직한 성품의 소유자인 함기용의 회고담이다.

“올림픽대회 파견 선발전에서 4위를 차지해 후보 선수로 런던에 갔지만 그때 참가했더라면 메달을 딸 수 있었을지도 몰라. 금메달을 딴 아르헨티나의 카브레라와는 몇 차례 도로에서 같이 달리기 훈련을 했는데 결코 뒤지지 않았어. 정식 대표 3명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런던 올림픽대회에서 한국 마라톤은 참패를 당했어. 그때 내게 참가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⁰¹³

차려 놓고 경기 활동 재개에 힘썼다.

1950년 10월에 열릴 예정이던 제31회 전국체육대회는 무산됐지만 이듬해인 1951년 제32회 대회는 체육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남 광주에서 10월 27일부터 닷새 동안 열릴 수 있었다. 우승 후보였던 서울은 전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일부 선수들만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들 선수의 태반이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 가며 한강을 건너 갖은 고생 끝에 더러는 배 편으로, 또는 열차 편으로, 심지어는 걸어서 광주 대회장에 도착했다. 제32회 전국체육대회에는 15개 종목 2254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마라톤에서 최윤철은 2시간 25분 15초로 세계최고기록을 세워 전쟁의 와중에서도 놀라운 투지를 보여 줬다. 2위 오세대는 2시간 25분 40초로 한국최고기록을 수립했다.

포연 속에 계속된 헬싱키 올림픽대회

포성과 총성이 멈추지 않은 가운데 제15회 헬싱키 올림픽대회의 개막이 다가왔다. 1951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는 올림픽대회 참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우선 우리의 젊은이들은 물론 자유우방의 용사들이 한국에서 피를 흘리며 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올림픽대회에 나가는 것은 국제적 신의에서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불참파의 주장이었다. 반면 참가하자는 쪽은 한국 국민들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체육을 통한 국제 친선외교에도 도움이 된다면 올림픽대회 참가를 지지했다.

013 고두현, 2008, p165~166 재인용.



▲ 1952년 헬싱키 올림픽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의 입촌식 장면.
▼ 체코슬로바키아의 자토펙은 헬싱키 올림픽대회 육상경기 남자 5000m, 1만m, 마라톤 3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런 가운데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왔다. 결국 국회는 만장일치로 올림픽대회 파견 건의를 가결했고 당시 대한체육회 의장이던 이승만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참가 결정을 내렸다.

1952년 5월 헬싱키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최종선발대회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최명숙이 12m 81을 던지며 아시아신기록을 수립했다. 최명숙은 앞서 1월에 열린 공인기록회에서도 11m 74를 던져 종전기록인 11m 64를 경신하고 한국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

육상경기, 역도, 복싱, 레슬링 등의 종목에서 가까스로 40여 명의 선수들을 꾸린 대표단은 단장 최순주, 총감독 이상백, 부감독 손기정의 인솔로 올림픽대회 참가에 나섰다. 이 대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성원은 앞선 런던 올림픽대회에 못지않았다. 대한체육회가 계산한 참가 비용은 8억 2500만 원.

당시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의 거액이었지만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으로 참가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림픽후원회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한편 기념 배지를 판매했다. 온 국민의 성원으로 한국 선수단은 1952년 7월 19일에 열리는 헬싱키 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장도에 올랐다.

이 대회 역시 기대 종목은 마라톤이었다. 한국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을 제패한 데 이어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우승했고 1950년 같은 대회에서 1, 2, 3위를 휩쓴 전통을 지녔기 때문이다. 기대주는 앞선 대회에서 아깝게 기권했던 최윤칠.

그는 1951년 10월 전남 광주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2시간 25분 15초라는 당시 세계최고기록을 수립했다. 더불어 이듬해 3월 대구에서 열린 올림픽대회 최종 예선에서 2시간 26분 07초를 기록해 우승 후보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 헬싱키 올림픽대회 마라톤 경기는 최윤칠, 최충식, 홍종오 등이 참가한 가운데 7월 27일 29개국에서 66명의 세계적 마라토너들과 함께 스타트했다.

최윤칠의 아까운 마라톤 4위

스타트부터 스피디하게 진행된 레이스에서 최윤칠은 평소 기록보다 약간 빠르게 2위 그룹을 형성하며 역주했다. 35km 지점을 5위로 통과한 그는 피니시라인 100m를 남기고 앞선 주자를 따라잡아 4위로 피니시라인을 넘어섰다. 2시간 26분 45초의 올림픽기록.

아울러 그때까지 올림픽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 가운데 최고기록이었다. 이날 마라톤에서는 1~6위 입상자 모두 올림픽기록을 수립해 화제가 됐다.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최윤칠이 올림픽기록을 수립하며 4위를 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었다.

워낙 세계적 강호들이 많이 참가한 데다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우리 선수들은 연습장소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영양 상태도 엉망이었다. 최윤칠과 함께 참가한 최충식은 2시간 41분 23초로 33위를 했고, 홍종오는 레이스 도중 기권하고 말았다.

헬싱키 올림픽대회 육상경기의 영웅은 5000m와 1만m, 마라톤 등 장거리 3개 종목을 모두 석권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에밀 자토펙이었다. 올림픽대회 사상이 3개 종목을 모두 우승한 선수는 그가 처음이었다. 힘든 표정으로 허덕이며 달리는 자토펙의 별명은 ‘인간 기관차’. 그의 아내 다니는 남편이 5000m에서 금메달을 딴 지 한 시간 뒤 여자 창던지기에서 우승해 부부가 금메달을 따내는 진기록을 세웠다.

자토펙은 기자회견에서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사람은 달린다.”는 말로 우승 소감을 피력하면서 “러너는 가슴 가득 꿈을 안고 뛰어야 한다. 호주머니 가득 돈을 채운 자는 진정한 러너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한번의 훈련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수백, 수천 번 훈련했을 때,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발전이 일어날 것이다. 비가 온다고? 그건 문제가 안 된다. 피곤하다고? 그 또한 문제가 안 된다. 의지력이 있다면 아무 문

아시아의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

제도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⁰¹⁴

한국은 기대했던 여자 포환던지기의 최명숙이 자신의 최고기록에 미치지 못한 저조한 성적으로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대신 한국 선수단은 복싱과 역도에서 동메달을 땀다.

헬싱키 올림픽대회가 끝나고 1952년 10월 18일 체육인들은 재건 의지로 뭉쳐 서울에서 제33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일주일간 치러진 대회에서 서울 대표를 비롯한 3300여 명의 선수들이 20개 종목에 참가했다. 서울 환도가 이뤄지기 전이라 도강증 없이는 한강을 건널 수 없던 시절이었지만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들의 상경을 돕기 위해 특별열차까지 운행했다.

1953년 9월 대한육상경기연맹 주최 아시아경기대회 2차 선발전회 겸 일반대학학생대항육상경기대회 여자 200m에서 김연실이 27초 1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이 기록은 1947년 장석호가 수립한 27초 8, 1949년 김연실 자신이 작성한 한국타이기록을 0.7초나 뛰어넘은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 열린 제34회 전국체육대회는 1953년 10월 17일부터 6일간 서울에서 펼쳐졌다. 20개 종목에서 5000여 명의 선수들이 자웅을 겨룬 이 대회부터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 현장과 심판 규정을 제정해 적용해 나갔다. 대한체육회는 이듬해 3월 16일자로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을 했다. 아마추어 스포츠의 총본부로서 더욱 안정된 활동을 꾀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 무렵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제2회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이 임박해 있었다. 1951년 3월 인도 뉴델리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지만 6·25전쟁 중이라 우리는 참가하지 못했다. 흔히 아시안게임이라고 하는 아시아경기대회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극동선수권대회(1913년 동양올림픽대회가 기원으로 이후 10회까지 개최됐으며 극동올림픽 또는 원동대회로도 불렸다)와 서아시아경기대회(1934년 뉴델리에서 1회 개최)를 합쳐 만들어졌다. 1949년 2월 아시아 9개국 대

⁰¹⁴ 한국일보, 2009년 6월 4일자 재인용.



한국 선수단이 1954년 제2회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표가 모여 대회 명칭을 정하고 국가올림픽위원회로 이루어진 아시아경기연맹 AGF: Asian Games Federation을 만들었다. 원래 1950년에 제1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으로 1년 후인 1951년 3월 4일부터 8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아시아 11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일본이 금메달 24개로 1위를 했다.

1954년 5월 1일 마닐라에서 개막한 제2회 아시아경기대회는 육상경기, 축구, 복싱, 농구 등 8개 종목에 18개국에서 1200여 선수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은 선수 59명을 포함해 모두 81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모두 77개의 금메달이 걸린 이 대회에서 첫 참가국인 한국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지 미지수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 한국이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로 일본, 필리핀에 이어 3위를 했다. 광복 후 불과 9년 만에 아시아의 스포츠 강국으로 떠오른 것이다. 헬싱키 올림픽대회에서 아깝게 메달을 놓친 최윤철은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500m와 5000m에 참가해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7대 회장을 지낸 윤치영.

최충식도 1만m에서 33분 0초 6의 아시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해 한국이 장거리 강국임을 확인시켰다. 이와 함께 해머던지기에선 송교식이 50m 83, 세단뛰기에서는 최영기가 14m 72를 기록하며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1954년 제35회 전국체육대회 육상경기에서 한국신기록이 속속 작성되었다. 남자 800m에서 심상옥이 1분 56초 4(종전기록 1분 57초 2), 400m 허들에서는 이동현이 56초 6, 윤춘이 59초 F(종전기록 59초 7)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남자 4×100m 릴레이에서 정기선·김종철·엄팔용·이이재로 구성된 경북팀이 43초 6(종전기록 44초 4)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954년 대한육상경기연맹은 내분으로 소란한 한 해를 보냈다. 이동근 회장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출범했으나 다른 쪽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윤치영 회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집행부가 꾸려져 한 지붕 두 회장 체제가 된 것. 결국 연말에 대한체육회가 나서 윤치영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분은 일단락되었다. 윤 회장은 제7대 회장으로 1961년까지 대한육상경기연맹을 이끌었다.

1955년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경기단체들이 시울시청 앞으로 옮겨 가 태평로 시대를 연 해다. 1955년 6월, 당시 이승만 정권의 실세였던 이기붕 대한체육회 회장이 처음으로 IOC 위원에 선출돼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1955년 6월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400m 허들에서 이동현이 55초 8로



▲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경기대회 육상경기 1만m에 참가한 선수들이 스타트를 하는 순간. 당시에는 마라톤 종목이 채택되지 않았다.
 ◀ 최충식 선수가 1만m에서 1위로 들어온 직후 스타프의 부축을 받고 있다.
 ▶ 남자 육상경기 장거리 1만m 시상 모습. 우승자는 최충식.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8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제4회 세계학생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김인기 감독 인솔 아래 최충식, 박승규, 심상옥, 이광호 선수가 파견되었다. 입상권에는 들지 못했으나 최충식이 5000m에서 15분 36초로 7위, 이광호가 높이뛰기에서 1m 75로 7위, 4×200m 릴레이에서 1분 59초 5로 5위를 했다.

8월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세계군인육상경기대회 멀리뛰기에서 서영주가 6m 73으로 1위, 해머던지기에서 송교식이 48m 76으로 2위를 하는 등 예상 밖의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다. 서영주는 1956년 8월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군인육상경기대회에서도 7m 17의 좋은 기록을 냈으나 미국에 간발의 차이로 밀려 2위를 했다.

그해 가을 열린 제3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성화 봉송이 시작됐다. 성화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점화돼 10월 14일부터 37개 구간에 걸쳐 봉송이 이뤄졌다. 37명의 성화 봉송 주자 가운데 최종 주자는 손기정이었다. 제 36회 전국체육대회 육상경기는 5종목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는 데 그쳤다.

1955년 국내에서는 마라톤 부흥과 조국 통일의 염원을 담은 역전경주대회가 열렸다. 1955년 11월 14일 한국일보, 국제신보, 영남일보 등 3개 신문사가 공동으로 연 부산~서울 역전경주대회가 그것이다. 장장 7일간 490.5km의 코스에서 펼쳐진 레이스 끝에 육군 특무대팀이 27시간 41분 15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서울팀으로 기록은 28시간 14분 15초였다.⁰¹⁵

멜버른 올림픽대회에서 또다시 마라톤 4위

1956년 6월 대한육상경기연맹 주최 제11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 제3차 예선에서 4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남자 멀리

⁰¹⁵ 서울체육 반세기, 2002, p119.

뛰기에서 서영주는 7m 20으로 해방후최고기록을 세웠고, 송교식은 해머던지기에서 54m 49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남자 800m에서 심상옥도 1분 54초 2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956년 11월 22일 개막한 호주 멜버른 올림픽대회는 제16회 대회이자 남반구에서 처음으로 열린 올림픽대회였다. 우리나라는 49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는데 이 대회에 파견할 마라톤 최종 예선대회가 1956년 9월에 열렸다.

임화동은 앞서 3월에 열린 보스턴마라톤대회 파견선수 선발대회에서 2시간 31분 42초로 1위를 했고, 2위는 2시간 36분 26초를 기록한 최충식이었다. 임화동은 5월 전남대학 주최로 충무공 정신 계승 제1회 전국마라톤대회에서도 2시간 28분 22초로 1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최종예선 마라톤에서 1위는 이창훈 2시간 34분 27초 1, 2위는 송길윤 2시간 39분 7초 9, 3위는 최충식 2시간 41분 40초 6이었다. 남자 세단뛰기에서는 1위 최영기 14m 99, 해머던지기 송교식 56m 30(한국신기록), 멀리뛰기 1위 서영주 6m 95 등이었다. 하지만 이창훈, 임화동 등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기록이 저조해 이들 두 선수만 선발하고 나머지 1명은 같은 해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뽑기로 해 최충식이 추가로 선발됐다.

1956년 제37회 전국체육대회 육상경기 첫 한국신기록은 여자 4×100m 릴레이에서 나왔다. 서울팀이 54초 2(중전기록 54초 9)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것. 이어 남자 해머던지기에서 송교식이 56m 48(중전기록 56m 30)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마라톤에서는 최충식이 2시간 29분 26초 8의 기록으로 1위를 했다.

멜버른 올림픽대회에서도 한국 마라톤은 메달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었다. 올림픽대회의 기본 종목인 육상경기는 마라톤을 제외하곤 번번이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1956년 12월 1일 43명의 각국 선수들이 참가한 멜버른 올림픽대회 마라톤 경기는 10명이 레이스 도중 기권했다. 우리 선수 가운데 최연소인 19세의 임화동 역시 2시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자인 서윤복 선수가 1969년 제5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최종 주자로 성화 봉송을 하고 있다.

간 28분대로 가장 기록이 좋아 기대를 모았으나 레이스 도중 기권하고 말았다. 대신 이창훈의 역주는 길가에 응원 나온 관중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양정고교생인 이창훈은 21km 지점에서 5위로 앞서 나갔으나 24km 지점에 이르러 10위 밖으로 밀려나 입상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렇지만 이창훈은 역주를 재개해 35km 지점에서 6위까지 따라붙은 뒤 37km 지점에선 지난 대회 우승자인 '인간기관차' 자토팩을 제쳤다. 피니시라인을 2km 앞둔 지점에선 그는 마침내 일본의 가오지마를 앞질러 2시간 28분 45초를 마크하며 4위로 들어왔다. 최충식은 2시간 36분 53초로 12위에 머물렀다. 이창훈은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4년 전 헬싱키 올림픽대회의 최윤철에 이어 올림픽대회에서 연거푸 4위를 차지해 한국 마라톤의 저력을 과시했다. 한국은 멜버른 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복싱)과 동메달(역도)을 각각 1개씩 따내 69개 참가국 중 아르헨티나와 함께 공동 29위에 올랐다.

1957년 부산 전국체육대회 사고의 악몽

1957년 3월 16일 보스턴마라톤 파견선수 선발 예선대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임종우, 한승철, 최충식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임종우가 2시간 22분 52초의 한국최고기록을 세우며 1위, 최충식이 2시간 24분 47초로 2위, 한승철이 2시간 24분 47초로 3위를 하며 보스턴마라톤에 참가하게 되었다. 1957년 4월 19일 제61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 우리나라는 서윤복 감독과 최윤철 코치가 이끄는 세 명의 선수를 파견했다. 이 대회에서 임종우가 2시간 24분 55초로 3위, 한승철은 2시간 28분 18초로 5위를 했지만 최충식은 기권했다.

그해 가을 제38회 전국체육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이 대회부터 지방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방 순회 개최 원칙이 정해졌다.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체육대회에는 24개 종목에 5579명이 참가해 서울이 종합우승, 경남이 2위를 차지했다. 당시 육상경기에서는 한국신기록 2개와 대회신기록 11개가 작성됐다. 남자 800m에서 심상욱이 1분 53초 8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여자 4×100m 릴레이에서 서울팀이 54초 F로 역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이 대회에서는 최악의 불상사가 벌어졌다. 그것은 관객들이 밀려들어 육상경기 심판대가 넘어지는 돌발 참사였다.⁰¹⁶ 이 사고는 경기장 통제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이자 지방 사회체육 시설의 불충분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 전국체육대회 역사상 전국 순회 개최의 효시가 된 제38회 대회에는 재일동포 선수단이 해외선수단으로 처음으로 참가했다. 10월 18일 개막식에는 근대 매스게임이 최초로 도입돼 볼거리도 풍성해졌다. 최종 성화 봉송 주자는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자인 서윤복이었다. 시민들은 이 개최식을

⁰¹⁶ 이학래 외, 1994, p311~312.

⁰¹⁷ 김상구 논문, 2007, p30.



▲ 1958년 6월 7일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는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 이 자리에서 이상백 단장은 국기를 반납했고, 정상희 총감독은 종합 성적을 보고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특히 마라톤 우승자인 이창훈 선수를 격려했다.
 ◀ 1958년 제3회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입장식에서 한국 선수단.
 ▶ 1958년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딴 서영주.

보기 위해 입장 시간 오후 2시보다 5시간이나 빠른 오전 9시부터 구덕운동장(당시 공설운동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기마경찰들이 인파를 정리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가운데 2만 명 수용 규모의 경기장에 7만여 명이 동시에 밀

러들었다. 이 과정에서 행사에 참여한 학생 2명이 압사하는 끔직한 사태가 발생했다. 곧이어 성화가 입장하는 2시쯤에는 육상경기장의 심판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학생 1명이 즉사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⁰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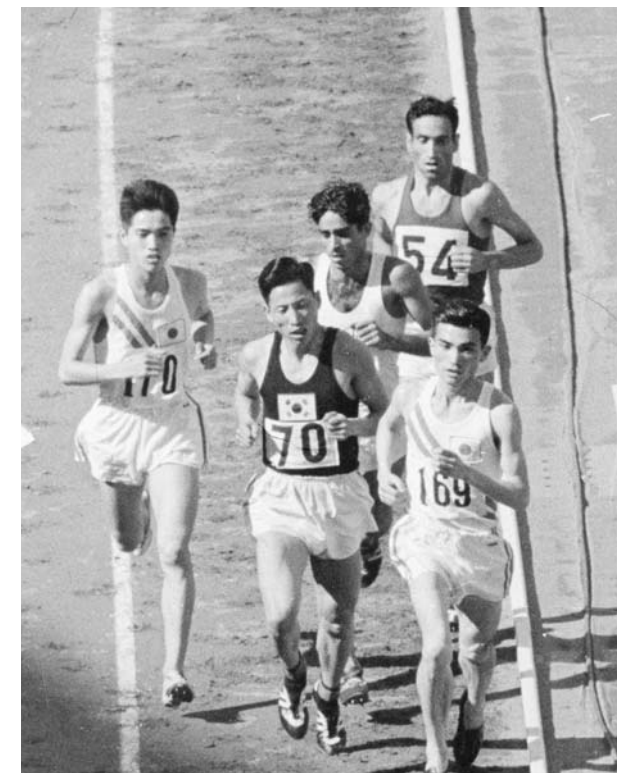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두각 나타낸 한국 육상경기

1958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제3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한국 체육이 힘차게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준 이벤트였다. 그리고 개최지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이상백을 단장으로 임원 24명, 선수 119명 등 모두 143명의 선수단을 꾸렸다. 이창훈은 이 대회에 처음 채택된 마라톤에서 2시간 32분 55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함께 참가한 임종우는 2시간 46분 14초로 4위를 했다. 우리 마라톤이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처음으로 선수를 파견해 거둔 성적이었다. 서영주는 멀리뛰기에서 7m 54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멀리뛰기에서 일본을 누르고 우승했기 때문에 그의 금메달은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됐다. 한승철은 5000m에 참가해 14분 41초로 은메달을 따냈고, 심상옥은 800m에서 1분 52초 08, 1500m에선 3분 59초 01로 모두 동메달을 획득했다.

1958년 10월 제39회 전국체육대회 육상경기에서 2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여자 4×100m 릴레이에서 서울팀이 53초 4(종전기록 53초 9), 남자 3000m 장애물에서 이복식이 9분 36초 8(종전기록 9분 55초 4)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남자 100m의 정기선 10초 6, 여자 100m의 오연중 12초 9, 멀리뛰기의 박영자 5m 12는 각각 해방후최고기록이었다. 남자 400m에서 심상옥은

⁰¹⁷ 김세호 논문, 2006, p37.



⁰¹⁸ 1958년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5000m에서 한승철(70번)이 역주하고 있다.

48초 5로 한국타이기록을 세웠다.

1959년 6월 대한육상경기연맹 주최 제13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포환던지기에서 박승규가 13m 73으로 18년 전 안영한 선수가 수립한 13m 61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다. 박승규는 7월 대학학생육상경기연맹 주최 제10회 전국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제6회 국제대학육상경기대회 파견선수 선발대회에서 13m 87을 던져 또다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한편 1959년 9·28수복 기념 국제마라톤대회가 한국일보사 주최로 열려 화제를 모았다.⁰¹⁸ 당시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회를 개최해 8개국에서 10여 명의 외국 선수들을 초청했다. 대회는 정규 코스로 인천에서 출발해 서울 중앙청 정문을 피니시라인으로 했다. 이날 대회에서 1950년대 한국 마라톤을 이끈 이창훈이 2시간 24분 07로 우승했다.

5

1950년대 스타
최윤칠과 이창훈

1950년대 한국 육상경기에서 장거리와 마라톤의 1인자는 최윤칠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올림픽대회는 물론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기록이 없다. 최윤칠을 ‘불운의 마라토너’라 부르는 이유다.

그는 1949년 3월 보스턴마라톤 파견 예선전에서 우승했지만 당시 대한육상경기연맹의 내홍으로 참가가 취소되었다. 이어 이듬해인 1950년 보스턴마라톤 파견 예선에서 2시간 27분으로 1위를 차지해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본 대회에서는 다리에 문제가 생겨 기권 직전까지 갔다. 당시 최윤칠은 대회가 임박해서 다리 근육통이 재발해 마취주사를 맞고 뛰느냐 포기하느냐의 갈림길에 있었다.

최윤칠의 보스턴마라톤대회 3위 입상의 감동

그런 와중에서도 최윤칠은 함기용, 송길윤의 페이스메이커로 뛰면서 3위로 피니시라인을 들어와 살신성인의 표본으로 국민들을 감동시켰다. 이를 두고 손기정은 최윤칠의 3위 입상이 더 소중하다며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950년대 전천후 철각 최윤칠이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 1500m에서 우승한 뒤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

“윤칠 군, 주사를 맞고 뛰다면 주사 맞은 자리가 굳어질 테고 또 심한 운동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른다. 나는 그 점에 책임질 수가 없어. 차라리 주사를 맞지 않고 뛰다면 내가 네 성적에 책임을 지마. 만약 세 사람 중 누가 우승하려면 또 다른 한 사람의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 테냐고 물었다. 그는 마취제를 맞지 않고 동료 선수들을 위해 앞장서서 외국 선수들을 유도했다. 그 다리의 고통,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모를 리가 없었다. 장한 사내였다. 최 군은 두 동료를 위해 다른 선수들을 유인해 기력을 빼놓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보이지도 기록되지도 않은 도움을 받아 함기용, 송길윤이 1, 2위로 나란히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 기쁨에 넘쳐 피

니시라인에서 환호하던 내 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어디쯤에서 기권해 차를 타고 들어올 줄로 알았던 최 군이 나타난 것이다. 최윤철은 다른 선수와 이를 악물고 마지막 승부를 걸고 있었다. 사력을 다한 300m의 마지막 스퍼트는 처절했고 그는 이 시련을 이기고 3위로 입상했다. 한국 마라톤은 아마 그만한 인물을 두 번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장사요, 대포알 같은 주력을 가졌다. 나는 함기용, 송길윤의 1, 2위보다 최 군의 3위가 더 소중하고 의미 깊은 것이라고 믿는다.”⁰¹⁹

최윤철은 1951년 광주에서 열린 제32회 전국체육대회 마라톤에서 2시간 25분 15초를 마크, 당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다. 그리고 이듬해 헬싱키 올림픽 대회에 참가했지만 4위에 그쳤다. 이 대회 마라톤에선 ‘인간 기관차’ 자토펙의 출현으로 기록이 앞당겨지면서 1~6위 입상자 모두 올림픽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

1950년대 최윤철이 작성한 기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00m 11초 2, 400m 49초, 1500m 3분 53초, 마라톤 2시간 25분 15초. 가히 전천후 철각이라 할 만하다. 최윤철은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 육상경기 1500m에서 우승한 뒤 메인스 타디움에 마련된 시상대에서 태극기를 바라보며 그곳이 올림픽대회였든 아시아경기대회였든 감개무량했다고 말한다.



- ▲ 이창훈이 1958년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에서 역주하고 있다.
- ◀ 1958년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에서 아깝게 4위를 한 임종우.
- ▶ 1위로 들어온 이창훈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

⁰¹⁹ 김광희, 2001, p355~356 재인용.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을 제패한 이창훈

식민지 경험이 생생한 1950년대의 스포츠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일본과의 경기였다. 육상경기에선 이창훈이 있었다. 그는 1956년 멜버른 올림픽 대회에서 4위에 입상한 건각으로 훗날 손기정의 사위가 된다.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마라톤은 1958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회 대회에서부터 채택되었다. 이 무렵 세계 마라톤의 추세는 지구력에서 스피드 중심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었다. 헬싱키 올림픽대회에서 자토팩이 2시간 23분대를 기록한 이래, 1957년 핀란드의 비스가리가 2시간 14분 14초, 소련의 포포프가 2시간 15분 17초를 기록하고 있었다.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은 30년 만에 폭서가 엄습한 5월 29일에 펼쳐졌다. 스타트 시간인 아침 10시 반의 기온은 섭씨 29도. 선수들이 한창 지칠 무렵인 35~40km 지점에서의 온도는 무려 38도까지 올라갔다. 이처럼 살인적인 무더위 때문에 마라톤 기록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메인스타디움에서 서북쪽의 나리마쓰를 왕복하는 레이스는 한국의 이창훈, 임종우, 일본의 하마무라, 사다나가 그리고 미얀마의 노우 등이 선두 그룹을 이루며 펼쳐졌다. 이창훈은 지구력으로 무장했고 임종우는 스피드에 승부를 걸었다. 레이스는 임종우가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이창훈과 일본 선수들이 한 그룹을 형성하며 벌인 숨 가쁜 경쟁이었다.

그렇게 반환점을 돌고 앞서간 임종우의 모습이 이창훈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같이 달리던 일본 선수의 숨결이 벽차 보였다. 그러자 이창훈은 그대로 속도를 더해 그를 뿌리치며 내달렸다.

32km 지점에서 독주하던 임종우가 보였다. 이창훈은 그와 보폭을 맞추며 뛰다 앞질러 나갔다. 워낙 더운 날씨 탓에 물통 뒤집어쓰기를 몇 번, 아스팔트는 콜타르가 녹아 들어붙을 지경이었다. 이 악전고투의 마라톤에서 이창훈은 거의 실신 상태로 피니시라인에 들어와 우승했다.

기록은 2시간 32분 55초. 2위보다 무려 10분이나 앞선 기록이었다. 이창훈이 일본의 쟁쟁한 마라토너들을 따돌리고 도쿄 시내를 관통하는 코스를 달려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에서 최초의 우승자가 된 것이다. 임종우는 4위로 들어왔다.

라디오 중계로 한국의 마라톤 제패 소식을 들은 남한의 국민들뿐 아니라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70만 재일동포들은 감격했다. 조총련계 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와 이창훈에게 열광적인 응원을 보냈다. 이창훈의 우승 이후 재일동포들은 자신의 명함에 새기는 이름을 일본식에서 한국식으로 바꿨을 정도였다고 한다.⁰²⁰ 일본 땅에서 이창훈의 우승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던 그들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한껏 불어넣어 줬다.

020 정희준, 2009, p72.